

국회의장도 '명심' 경쟁... 당 안팎 우려 시선

明心·이재명 대표 의중

정성호·조정식·추미애에 경쟁 과열 '친명 체제' 강화 속 선명성 행보 박지원 "일사불란, 정치가 아냐" 이종배 "민심 제대로 읽고 있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의중) 팔이'와 강성 지지층을 향한 '선명성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당 안팎에서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친명 체제'가 강화된 민주당에서 명심과 당심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되는데, 정치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인은 25일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명심팔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쏠려서 일사불란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의장 관례가 중립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정치"라며 "나는 민주당에서 나왔으니까 당 편만 듣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회의장은 법 정신대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민심대로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정치력, 협상력, 투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자들은 출사표를

던진 후, 명심과 당심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5선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장 역할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합의가 결정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6선 조정식 의원은 "친명"을 강조했다. 그는 "명심은 당연히 제가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대표와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싸울 때 제대로 싸우고 성과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

다"고 주장했다.

6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기계적 중립 기어를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 혁신 의장의 역할을 거부하지 않겠다"라며 민주당 지원 의사를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은 재직 기간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여야 사이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민주당 의장 후보들이 쏟아내는 발언은 협치보다는 입법 독주를 예고하는 듯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인사들이 22대 국회가 개원하

기도 전에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며 "민심을 제대로 읽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입법부 수장이 되려는 국회의장 후보라면 여야 협의 방안을 고민하고 국정운영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게 옳지 않겠나"며 "'의사봉을 두드릴 때 한 번은 여당을, 또 한 번은 야당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을 본다'는 이만섭 제16대 국회의장의 말을 의장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들이 꼭 한번 되새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중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진보당·새진보연합 비례 당선인 각자 당으로

민주연합, 4명 제명 징계 김윤 등 민주 합류 171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연합에 합류했던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등 당선인이 제명 징계를 통해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

민주연합은 25일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혜경·전종덕(진보당), 용혜인(새진보연합)·한창민(사회민주당)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들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은

민주당 합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수는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더한 171석이 될 전망이다.

김윤·서미화 당선인은 "보다 진보적인 제3의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바람을 갖고 있지만 함께 숙고한 끝에 효과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 민주연합에 남기로 했다"며 "시민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들의 해결과 더불어 연합정치와 정치개혁을 앞장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첫발을 댄 연합정치를 더욱 발전시켜 민주진보개혁 세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고 촛불 과업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국회 운영위 개최 거부' 국힘 규탄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25일 여의도 국회 소공동에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채 해병 사건 개입 의혹 관련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민주당과 협력적 관계 유지"

조국혁신당 황운하(사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 검찰개혁 완수,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7공화국 건설이라는 과제를 국민들께 약속드리고, 이번 총선에서 선택을 받았다"며 "이 약속을 원내에서 정책과 법안으로 어떻게 잘 뒷받침

할 것인가가 제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협력적 또는 연대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겠다"면서, 원내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대해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김영록 지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모색

덴마크 SBS 선진 시설 시찰 탄소·악취 저감 현황 등 살펴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세계 최대급 규모의 바이오가스 시설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덴마크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찾아,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및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모색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4일(현지시간) 덴마크 클립레프에 위치한 SBS(Sustainable Bio Solutions)의 선진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을 시찰했다.

이번 시찰은 가축분뇨의 퇴·액비 자원화 위주 처리에서 벗어나 에너지화로 전환시키고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바이오가스

시설과 에너지 생산량, 탄소저감효과, 악취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은 단순히

생산된 가스의 전기 전환, 인근 주민에게 발전폐열 등을 공급하며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김영록 지사는 "가축분뇨를 퇴·액비 자원화 위주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해 가축분뇨로 에너지를 생산토록 하는 등 전남지역 농촌에 꼭 필요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업무자동화로 '디지털행정' 가속

시스템 구축... 年 3000시간 단축 AI·데이터 활용 업무 재설계

광주시가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업무자동화시스템은 사람이 하던 정형·반복적 업무를 인공지능 기술(AI)을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해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과제다.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교육이수 실적을 직접 등록했지만 이제는 업무자동화

시스템(RPA)으로 처리토록 해 개별 등록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는 매월 부서마다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식비 금액 계산을 자동화해 업무시간 절감과 함께 수기 계산에 따른 실수를 차단했다.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는 1년에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통지하던 상시학습 실적을 자동화를 통해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개별 통지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처리로 연간 약 3000시간 이상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화 도입 효과를 분석해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

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행정업무 재설계로 자동화 처리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자동화 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동화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다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입 효과가 증명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절감된 시간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업무와 시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집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배원권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트라우마센터, 30일 민중미술가 홍성담 초청 강좌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30일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홍성담 민중미술가를 초청, '치유의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연은 '꿈에서 만나는 트라우마'를 주제로 진행되며, 인간의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 꿈에서 트라우마와 어떻게 만나는지, 작가가 그림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시

민과 함께 나눈다.

홍 미술가는 뉴욕의 국제정치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2014년 세계를 뒤흔든 100인의 사상가'에 선정됐으며, 현재 생명평화미술행동에 참여해 탈핵미술행동, 연안환경미술행동 등의 현장미술운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 저서로는 '바리', '난장', '운동화 비행기', '오월' 등이 있다. 강좌 참여 희망자

는 광주트라우마센터(062-601-1978)에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석희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광주트라우마센터가 국가폭력으로 인한 공동체 치유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트라우마센터는 6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가 운영 중인 '치유의 인문학' 강좌는 올해 2차례만 운영한다. 노병하 기자